

그 날

-연(蓮)에게

난,
네가 정말 그렇게 처연한 얼굴을 하고서
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자리 위에서
그저 한 마리 나비처럼
사뿐히 나앉아 있는 이유를

밤낮 조바심치며 네 곁을 서성이는
저 바람이 헤집어 놓은 물아래 상처가
어떻게 너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
묻고 싶었어

너의 안개와 너의 빨들이
정말 우리를 잎 넓은 대문을 지나
푸른 저녁으로 가는 길로
안내해 줄 수 있는지

대궁이 속을 삼지창처럼 텅텅 비워놓고서도
꽃꽂하게 바람 속에 심을 박고 서 있는 이유가
저 하찮은 미물들이 펴 올리는
아우성을 견디기 위한 안간힘이거나
아니면 그냥 무상함이거나
그건 이제 묻지 않으려고 해

다만, 한 방울의 허튼 빗물도 껴안지 않고
후두둑 털어버리는 네 아스한 얼굴이
어떻게 밤새 내 마음을 젖게 하는지

물 아래 통통 부어오른 네 발가락 마다
피어오르는 그 서럽고도 거룩한 향내
안개와 빨과 어둠을 두려워하는
내 보송한 열 개의 발가락을 내려다보며
어떻게 너의 그늘이 꽃이 될 수 있는지

꼭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.

*빨-늘 바닥에 있는 미끈미끈한 흙.

